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2.5.27(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요 럽

- 英, '이슬람 테러리스트 자료 공유' 혐의 13세 소년 체포
 - 5.17 영국 런던광역경찰청 대테러사령부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자료 공유 혐의로 13세 소년을 체포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테러리즘에 경도되는 십대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 표명
 - * 영국 보안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21.3월까지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13%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전년도 5%에 비해 증가
- 벨라루스, 개정 형법 '테러 시도' 행위 사형 처벌
 - 5.18 벨라루스는 △외국이나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테러, △범죄 조직의 테러, △핵·생화학물질 테러 등은 물론 同 범죄 시도(예비) 행위까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 10일 후 시행 예정
 - *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대표적 親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방어조치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
- 독일 등, 온라인 음악 서비스 '극단주의 파일' 삭제
 - 5.20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독일 등 유럽 6개국* 사법기관이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 SoundCloud와 협력하여 이슬람 및 폭력적 극단주의·극우테러 선동 오디오 파일 수백개를 삭제했다고 발표
 - * 독일·영국·덴마크·헝가리·포르투갈·스페인 / 1,100여개 파일 적발 및 신고 접수

미 주

- 美, 하원 「국내 테러 방지법」 의결
 - 5.19 美 하원은 최근 버펄로 총격 사건 등을 계기로 자국내 테러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내 테러 방지법」*을 의결(찬성 222, 반대 203)하였으나, 상원 통과여부는 미지수
 - * 법무부·국토안보부·FBI에 별도 테러 전담부서 신설(기존에는 테러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 및 年 2회 자국내 테러위협을 분석한 '합동보고서' 제출 의무화

아 · 태평양

- 외교부, 스리랑카 '테러 경고' 안전공지
 - 5.20 외교부는 최근 스리랑카 국방부가 '타밀반군(LTTE)의 테러 가능성'을 경고(5.18)한 것과 관련, 스리랑카 체류 국민의 외부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각별한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

* **타밀반군**(타밀엘람해방호랑이, LTTE): '76.5월 스리랑카 동북부에서 타밀族 분리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창설되어 스리랑카 전역에서 정부기관 및 집권 싱할리族 대상 자폭테러와 요인암살·무장공격 등을 자행해 왔으며, '09.5 정부의 소탕작전으로 사실상 해체
※ 인도 「라지브 간디」 총리('91), 스리랑카 「프레마다사」 대통령('93) 등 암살

- 아프간, 경제위기 다수 사망자 초래 우려
 - 5.23 「데버라 라이언스」 UN 아프간 특사는 미군 철수 후 현지의 경제 위기로 지난 20년 전쟁보다 아프간인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UN 안보리가 탈레반과 협력해 경제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
 - * 또한, “탈레반을 고립시킨다는 잘못된 정책이 아프간 경제를 붕괴시키고 약 2천만명의 사람들을 기아로 몰아 넣었다”고 부연

중 동

-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테헤란 도심 총격 피살
 - 5.22 언론은 이라크·시리아에서 ISIS와의 전투를 지휘한 경력의 「사이드 호아에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령이 테헤란市 소재 자택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에 의해 총탄 5발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
 - *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으나, 이란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한 보복을 공언

아프리카

- 예멘, 후티 叛軍 정찰용 드론 격추 6명 사상
 - 5.24 언론은 예멘 수도 사나 주택가에 사우디 주도 연합軍 정찰 드론이 추락해 사상자 6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사건 직후 후티 叛軍은 해당 무인기 운용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격추했다고 주장

페루, 공산주의 叛軍 무차별 총기 난사 테러

- '21.5.23 22시경 페루 남부 사티포州 산미구엘의 델 에네 지역에서 페루 공산주의 叛軍단체 MPCP (Militarized Communist Party of Peru)* 소속 조직원 수십 명이 무차별 총격 난사 테러를 자행하여 어린이 포함 18명 사망
 - * MPCP(Militarized Communist Party of Peru) : 페루 內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공산주의 반군세력으로 '92년 결성되어, 납치·살인·파괴 등 反정부 폭력투쟁 활동 지속
- 페루 대선을 앞둔 사건 당일 MPCP 조직원들은 마을 內 편의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하였으며, 시체를 불태우고 선거 방해 목적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 테러의 정치적 효과 극대화
 - * MPCP는 '민주주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였으며, '대선 보이콧'을 종용하는 등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테러 감행
- 테러 발생 이후 페루 정부 및 정치인들은 해당 공격을 즉각 비난하였으나, 軍·警은 사건 발생지역*이 각종 이권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극적인 사건조사와 범행주체 대상 진압활동 미전개
 - * 페루 남부지방은 마약 '코카인'의 주 원료인 '코카'의 최대 생산지역으로 많은 범죄·테러 조직들이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치안·행정력이 제한적으로 작용

< MPCP(Militarized Communist Party of Peru) >

* 스페인어 'Militarizado Partido Commuista del Peru

- (결 성)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극좌주의 反정부 무장단체로 정부 전복을 통한 페루 內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92년 결성
- (핵심인물) 콤라드 호세('18년부터 지도자 지위 확보)
- (활동지역) 페루 중남부지역 농업지대(일명 'VRAEM' 지역)
- (활동수법) 對정부 게릴라戰, 마을 습격 및 주민 학살 등
- (참고사항) 냉전시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수행하였던 페루 反정부단체 '샤이닝 패스(Shining Path)'의 후신을 자처하였으나, 실상 反정부 활동보다는 마약 판매·운송·인신매매 등 지역 內 이권확보에 집중